

작은 꽃

재속 프란치스코 성 디에고 형제회 소식지

주요 날짜:

- 5 월 6 일
Soup Kitchen 봉사
- 5 월 13 일
성경모임
- 5 월 14 일
성 마티아 사도 축일
- 5 월 27 일
성령강림 대축일
월례회
- 5 월 31 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

다음쪽:

월례회
성경모임
한 걸음씩



당신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주 상란 미셀, SFO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주님 저는 당신이 그리웁니다. 당신만이 나의 힘, 당신 말씀이 그리웁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저의 영혼이 나아질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월례회 양성 시간에 마르크 수사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셨다. 이 질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서슴없이 나온 나의 대답이었다. 80 년대 초였다. 내가 미국에 이민온지 한 해가 막 지난 어느 날 혼자 아파트에 있다가 갑작스런 복통으로 참을 수가 없어 배를 움켜잡고 911 에 전화해서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 수술 받은 적이 있다. 수술을 받으려고 기다리면서 남편에게 연락이 안되어 보호자 없이 혼자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고통에 떨고 있었다. 진정이 안 될 만큼 온 몸을 떨고있는 나를 간호사가 담요를 몇 개를 덮어 주어도 계속 온몸을 떨렸다. 지금 생각해 보면 통증으로 아파서이기보다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었던 것 같다. 다행히도 내 손에 목주가 있었기에 목주를 손에 짚고 주모경을 마음속으로 마구 읊었다. 내가 매달릴 것이라고는 내 손의 그 목주 뿐이었고, 기도라기보다는 살려달라는 부르짖음, 절규였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왔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는 나지막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순간 ‘어! 이게 무슨 소리지?’하며 한참을 어리둥절하였는데, 놀랍게도 진정이 안되어 떨고 있던 나의 몸은 언제 떨었냐는 듯 잠잠해졌고 아파서 움켜잡고 있던 복통도 없어지면서 몸이 편안해졌다. 몸뿐만 아니라 무서워 떨고 있던 마음까지 편안해짐을 느꼈다.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나는 놀라움 속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

달았다. 나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그 때의 놀라움과 그분의 사랑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참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들었던 은총의 순간이었기에... 그렇다. 우리는 삶에서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며 아무 도움도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있다. 철저히 혼자일 때가 있다. 그런 절대 고독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도움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도 공생황을 하시기 전에 오로지 홀로 서시기 위하여 절대 고독을 찾아 광야로 가셔서 하느님과 함께 머무르시며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셨듯이, 우리도 때로 혼자 있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삶 속에서 이런 광야의 시간을 많이 지냈고 지금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그럴 때 마다 내가 가는 곳은 주님의 십자가 앞이다. 그 앞에 머물다 보면 자비하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신다. 버랑으로 떨어지는 나를 오른손으로 잡아주시기도 하고, 폭풍 속에서 허덕이는 나를 건져주시기도 하고 어리석은 나를 꾸짖고 타이르시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주는 주님을 체험한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하느님이 함께하심을 체험하면서 나는 기쁨 속에 안도의 쉼을 쉬려하면 또 나에게 여지없이 찾아드는 것이 있다. 바로 유혹, 시험과 시련이다. 이것이 외적으로 오든 내 내면에서 오든 나에게 찾아 든다. 그리고 매번 그 유혹과 시련을 통해 나의 나약하고 이그러진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에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리고 무능력함에 다시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 그리

성 디에고 형제회

월례회:
매달 4 번째 주일
오후 2 시 30 분
St. Columba 성당
3327 Glencolum Drive
San Diego, CA 92123

전화:
(858) 484-1943

E-MAIL:
oh_younghoon
@yahoo.com

‘작은꽃’에 관한 문의:

전화:
(858) 618-1164

E-MAIL:
kwon_youngwhan
@yahoo.com

고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른다. 아마도 이 여정은 끝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나 보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란 그분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며 내 영혼에 힘이 되기에... 오늘도 고독과 침묵 속에서 나의 나약함에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께 기도드린다. ‘아버지시여, 제가 언제나 천상 선물을 갈망하며 당신께 가까이 가게 도와 주소서!’
“주님 제 기도를 들으소서. 제 부르짖음이 주님께 다다르게 하소서. 제 곤경의 날에 주님 얼굴을 제게서 감추지마소서. 제게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제가 부르짖는 날 어서 대답하소서”(시편 102)

월례회



첫 결음

지난 25일 월례회는 새 지원자 고 경하 베드로, 길란 마리아 부부의 환영식으로 시작, 3개월간 Orientation을 받으시고 입회 준비의 뜻을 밝히신 두분을 환영하였습니다. 지난 달에 계속하여 Mark수사님께서 시편42장의 주제인 ‘당신은 무엇을 갈망하는가?’라는 질문으로 함께 생

각하는 시간을 지도해 주셨고, 남은 사순기간 동안 나의 갈망과 ‘하느님께서도 나를 갈망하고 계신다’는 점을 묵상해보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성경모임 - 에제키엘



만학도

성삼일 전례에 연이어 부활 낮미사까지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극성스러운 형제들이 지난 8 일 모였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분량(48 장)의 에제키엘서를 공부하였습니다. 기원전 593-570 년 20 여년간 예언자로 활동을 한 에제키엘의 예언활동은 두 시기로 구분되는데, 바빌론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 이전 성전과 성도의 파멸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한 시기(1-24 장)와 예루살렘의 파괴 이후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예언(25-48 장)하는 시기입니다. 정복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이방민족들의 신앙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에제키엘 예언자의 ‘하느님은 거룩하시다’는 신명기적 정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족들이 듣기 싫어하는 하느님 말씀을 전해야 했던 에제키엘의 모습에서 자신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만을 이루고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신앙인의 모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 정리]

이번 달에는 저희 형제회의 주보성인이자 이곳 샌디에고 교구의 주보성인이신 디에고(San Diego de Alcalá de Henares)성인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디에고보다는 디다쿠스(St. Didacus)로 알려진 성인은 스페인 세비야(Sevilla)의 가난하지만 신앙깊은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프란치스칸 3 회원이 되어 오랫동안 은수자의 삶을 살다가 작은 형제회의 평수사로 입회하였습니다. 카나리아 제도(Canary Islands)로 파견되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언행의 모범으로 많은 원주민들을 개종시켰습니다. 1445 년 성인은 열성과 뛰어난 성덕으로 인정받아 평수사로는 파격적으로 수도원의 원장으로 선출되었고 1449 년 스페인으로 돌아옵니다. 1450 년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 성인의 시성식에 참가차 로마로 갔다가 당시 창궐한 전염병으로 앓는 형제들을 아라 코에리 수도원에 남아 돌보게 되었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심만으로 많은 형제들을 치유하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스페인으로 돌아와 알칼라에서 남은 여생을 회개와 관상으로 보내다가 1463 년 11 월 12 일 세상을 떠났고, 1588 년 교황 식스투스 5 세(Sixtus V)에 의해 시성되었습니다.

